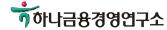


04 2013년 No.01

하나 행복가이드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한 · 미 개인연금제도 비교와 시사점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2080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Contents

이슈포커스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한•미 개인연금제도 비교와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비중 확대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		11	
국내외 단신	美 Millennial 세대의 퇴직연금 수요와 효과적인 가입독려 방법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방안 국내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수준에 근접		15	
상품브리프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지급식편드		19	
하나뉴스	하나은행, Asian Banker지로부터 모바일뱅킹 • 주택대출부문 수상 등		21	
연금 통계			23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수석연구원 오 영 선 (ohvs@hanafn.com)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 도 은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기관의 은퇴설 계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은 30%에도 못 미치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 사실 자체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설계서비스가 일부 부 유츙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010 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은퇴후 행 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 융권에서는 은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투어 다양 한 은퇴설계서비스를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적 은퇴준비가 필요한 것도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에서는 은퇴준비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만 막상 주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은 퇴계획을 수립했다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동 보고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에 거주 하는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퇴설계의 필요성과 실행 간 에 존재하는 갭(Gap)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은퇴설계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후 재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7%가 노후준비를 위한 별 도의 경제적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보다는 은퇴에 가 까운 연령대일수록 노후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더 욱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은퇴에 접어든 60대의 경우에도 70.3%가 노후 재무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별다른 재무 계획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한 은 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별로는 근 로소득 혹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재무설계의 필 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득 규모가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층의 경우 69.5%가 노후 재무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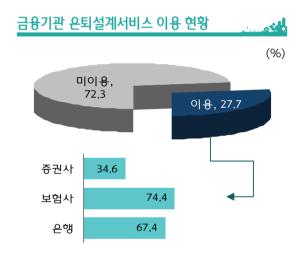
은퇴를 대비한 재무 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30 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1.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도 1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도 은 퇴설계는 일찍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야 적은 부담으로 노후를 대 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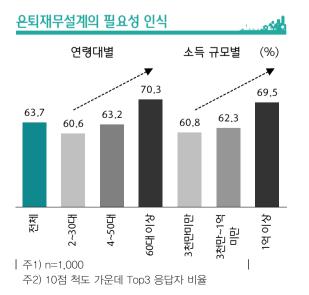
은퇴설계서비스 이용률은 3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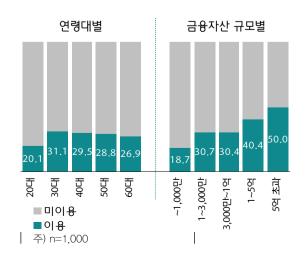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은퇴설계서비스는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받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온라인 은퇴설계 Tool이용까지 포함한 서비스로 정의 하였다. 광범위한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질 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 타났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 으나 30대의 은퇴설계서비스 이용률이 31.1%로 그나 마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높을수록 은퇴설계서비

스 이용률은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우리 사회 의 분위기로 인해 은퇴설계를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로 생각하는 편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은 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4.4%가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 였으며 67.4%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증권사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한 고객은 34.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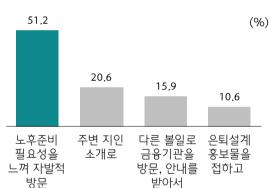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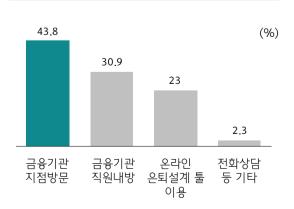
한편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 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적 지출과 저축 에 대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용했다고 응답하였 다. 이어서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은퇴설계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6%,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했 다가 은퇴설계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받아서 이용했다 는 사람이 15.9%를 차지하였다. 반면 TV, 신문 등의 은퇴설계서비스 광고 등 홍보물을 접하고 금융기관을





│ 주) n=3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방식



│ 주) n=3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6%에 불과해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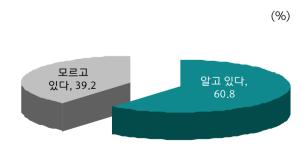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방식으로는 금융기관 지점 방문 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비중 이 30.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은퇴계산기와 같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고객은 23.0%로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50대 고객 층의 온라인 은퇴설 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 40%는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 제공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그렇다면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은퇴설계서비스 이 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9.2%는 금융기관에서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계기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의 은퇴설 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금융기관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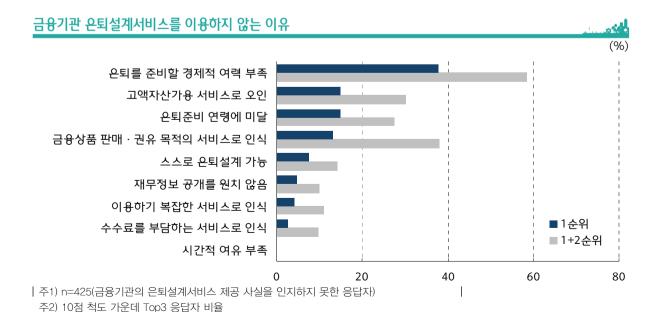
│ 주) n=7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비이용자)

가장 많은 응답자(37.6%)가 현재 은퇴를 준비할 경제 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복수 응 답을 고려하는 경우 경제적 여력 부족을 선택한 비율 은 무려 58.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은퇴설계서비 스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이용하 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15.1%)을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절실하고 체계적인 은퇴설 계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은퇴준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설계서비스가 금융상품 판매.권유를 목적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서 이용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3.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유 자산의 규모가 3억원 이상 되는 응답자 가운데 20% 이상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상품 가입 권유가 부 담스러워서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도 스스로 은퇴설계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나(7.5%). 개인의 재무정보를 공개하 기 싫어서(4.7%) 혹은 이용하기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4.2%)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은퇴설계 경험은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켜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은퇴재무설계는 왜 해야 하는가? 은퇴재무설계는 계획의 실행 여부를 떠 나서 은퇴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은퇴재무설계라는 행위를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심 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 실제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삶에 대 한 만족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설계 서비스 이용자 집단: 54점, 비이용자 집단: 47점), 물 론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금융자산의 규 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자산을 1억 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소위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경 우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하여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 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해 느끼고 있는 안정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안정 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집단: 56점, 비이용자 집단: 48점),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 와 마찬가지로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적을수록 은퇴 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계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예측 가 능 정도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집 단: 57점, 비이용자 집단: 51점). 금융자산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부유층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은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금융자산 3,000만원 미만 보유 집단 및 금융자 산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보유 집단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과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지 않 은 소비자들간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 중에서 은퇴설계서비 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비이용 집단에 비하 여 경제적 만족도와 안정감,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 측 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미래의 소득 및 지출 규모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 고 적정 은퇴자금 등을 산출한 경험이 있어서 미래에 대비한 재정 계획을 수립했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미국 시민 역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구체적 재정계획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에 비하 Financial Comfort (재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안정감) 및 Financial Confidence (재무상황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이 높다 고 조사되었다. ¹⁾

은퇴설계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 필요

끝으로 향후 금융기관이 더 나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퇴설계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뿐 만 아니라 현업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시 중요 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객 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다양한 은퇴관련 금융상품 제

은퇴설계 경험의 심리적 효용



				= = = 1.1. =				
	구분	전체	보유 금융자산 규모					
↑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4	48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47	30	51	63			
가계 재정상황에 대 한 안정감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6	48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48	39	51	63			
가계 재정상황에 대 한 예측 가능성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7	52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51	46	53	64			

| 주1) n=1,000

주2) 단위는 점 (10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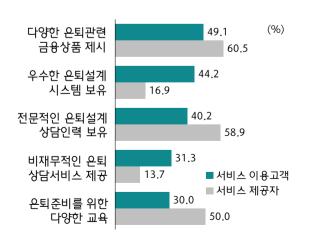
1) '2012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Survey', CFA (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 INC.)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적절한 상품을 구비하 여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시 상품의 다 양성 다음으로 우수한 은퇴설계 시스템 보유를 중요하 게 고려한다고 응답한(44.2%) 반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동일한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16.9%에 불과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약 3명 중 1명의 고객들은 비재무 적(건강관리 등) 은퇴상담 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고 응답했으나, 금융기관 직원 중 해당 서비스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선택한 비율은 13.7%로 나타나 고객과 금융기관 직원이 인식하는 서비스의 중요도가 각기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 한 교육 제공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느끼는 중요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은퇴설 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46.9%가 노후 준비 중 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시행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즉. 일반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부족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 관련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강화(34.7%), 상품경쟁력 제고(13.7%)도 은퇴설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요한 사 항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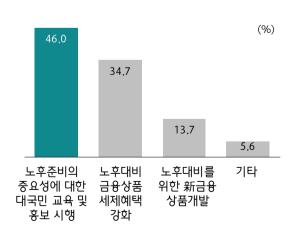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은퇴설계서비스 가 일부 부유층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평범한 사 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품, 시스템, 인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재무적인 은퇴상담 서비스 등 고객 의 입장에서 원하는 은퇴설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이 은퇴설계가 노후준비의 첫걸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 도록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시 주요 고려사항



l 주1): n=1.000 주2): 1+2순위 응답 비중

은퇴설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점



│ 주: n=124(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제공자)



한.미 개인연금제도 비교와 시사적



수석연구원 주 윤 신 (vsju@hanafn.com)

"최근 개인연금제도 개편으로 기존 연금저축과 퇴 직연금계좌 중 DC 및 IRP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로 통합되면서 연금 납입, 수령 및 세제 등 상당 부 분에서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사실상 모호해졌 다. 미국의 경우 IRA가 우리나라의 IRP와 연금저축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IRA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상품 특성 및 세제혜택 등이 다른 다양 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 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을 IRP로 통합 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는 상품 개발을 위한 과세체계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P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보유

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가가 급여를 책 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 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 연금 등 3층 연금체계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연금제도 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 며, 기업연금으로는 DC, DB, IRP 등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저축. 연 금저축. 신연금저축 등 세제적격 상품과 그 외 세제비 적격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IRP는 근로자 또는 퇴 직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해당 되지만.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 의 추가 납입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의 성격 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IRP 및 신연금저축 제도와 미국의 IRA 제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개인연금제도 개편으로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사실상 모호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에 처음 선보 인 IRA 제도는 퇴직금 이전 의무화, 가입대상 확대 및 추가 납입 허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 7 월 근퇴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IRP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2012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과 근퇴 법상 퇴직연금계좌 중 DC 및 IRP가 소득세법상 연금 계좌로 통합되면서 연금 납입, 수령 및 세제 등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은 가입대상 및 의무가입여부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고, 의무 납입기간 및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및 범위, 과세기준 등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IRP의 경우 가입대상이 퇴직일시금 수령자, DB및 DC가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55세 이전 퇴직 시 가입이의무화(추가 납입은 선택적)되어 있는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두 상품 간구분이 모호해졌다.

IRP와 연금저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 계좌 합계 연간 1,800만원 수준으로, 분기당 한도가 사 라졌다. 의무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연금수령시점은 만 55세 이상이다. 또한 자기부담금에 한해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과세기준 측면에서는 정해진 연금수령한도(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내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3~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70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로 연금을 늦게수령할수록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또한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및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사용자부담금이 아닌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른 6~38%의 세율을 적용한다.

IRP와 연금저축 비교



구분	분	IRP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가입대	대상	- 퇴직일시금 수령자 - DB, DC 가입자 - 자영업자 등 (2017년 7월부터 가입 가능)	제한없음					
의무가입	입여부	55세 이전 퇴직 시 의무 가입 (추가 납입은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에 의한 가입					
납입한	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합기	예 연간 1,800만원 (분기당 한도 없음)					
의무 납	입기간	최소 5년 이상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연금수형	령시점	최소 만 55세 이상	최소 만 55세 이상					
소득공제 한	도 및 범위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자기부담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	기준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한도초과금액은 퇴직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수령한도=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OI J. E	연간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연금소득세 부과 - 일반 : 5%, 종신형 및 70세 이상 : 4%, 퇴직소득 및 80세 이상 : 3%						
, 드 네 H 기	연금소득	연간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 1,200만원 초과분은 6~38%의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른					
소득세 부과	등세 부과 기타소득은 사용자부담금이 아닌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에 적용 기타소득 일반연금 수령의 경우 20%, 부득이한 연금수령의 경우 15% 세율 적용 단, 300만원 초과의 경우 일반연금 수령의 경우는 종합과세, 부득이한 연금수령의 경우는 분리과세							
	퇴직소득	일반연금 수령 및 부득이한 연금수령 모두 기본세율의 적용	을 받음					

│자료: 기획재정부

미국은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IRA가 퇴직금 이전 및 저축 기능을 모두 수행

미국의 개인연금은 크게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nnuity)으로 구분된다. IRA는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포함하며, 개인퇴직연금은 일반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IRA 중 SEPIRA 및 SIMPLE IRA 등 사용자보조 IRA는 기업연금으로 구분된다.

1974년 ERISA에 의해 도입된 미국 IRA는 도입 당시 가입대상을 기업연금에 미가입된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나, 이후 1981년 ERTA 제정과 함께 가입대상이 기업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IRA는 기업연금의 혜택을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후 가입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퇴직 후경제적 안정을 위한 추가 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¹⁾ 이는 국내 IRA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가 최근 근퇴법 개정에 따른 IRP 도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납입이 허용된 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미국은 퇴직연금의 이전이 아닌 개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에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IRA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업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IRA가 개발돼 가입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IRA는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전통적 IRA, 사업자보조 IRA, Roth IRA를 비롯하여 배우자 IRA, 교육 IRA, 비공제 IRA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미국 IRA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중심으로 가입기준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해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IRA의 경우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최소 필수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70.5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령을 해야 하며, 최소 필수 수령액보다 적게 수령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Roth IRA의 경우에는 70.5세에 도달하더라도 최소 인출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입자 자유 의사에 따라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

미국 IRA 특징



구분	내용
전통적 IRA	-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소 필수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70.5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령 (59.5세 이전 적립금 인출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 - 납입한도: 2013년 기준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 (부부간 한도 합산이 가능) - EET 방식의 세제혜택 제공
Roth IRA	-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최소 인출제도의 제약이 없어 가입자 자유 의사에 따른 적립금 인출이 가능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계좌 유지 및 59.5세 이후 인출 등의 조건이 요구) - 납입한도: 2013년 기준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 (부부간 한도 합산이 가능) - TEE 방식의 세제혜택 제공

|자료 : IRS

1)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2005.10)

1

다. 두 제도 모두 59.5세 이전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나. 전통적 IRA의 경우 고액의료비 지출. 최초 주택 구입. 고등교육비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Roth IR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 소 5년 이상 계좌 유지 및 59.5세 이후 인출 등의 조건 이 요구된다. 납입한도는 2012년 기준 전통형 IRA와 Roth IRA 모두 \$5,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6,000 까지 소득의 100% 내에서 납입이 허용된다. 동 기준은 2013년 각각 \$5.500 및 \$6.500로 한도가 증가할 예정 이다. 또한 부부 간 IRA 납입한도 합산(spousal IRA limit rule)이 가능해 50세 미만 기혼자의 경우 2012년 기준 최대 \$10,000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전통적 IRA는 적립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세 제혜택을 받고 후에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EET(exempt-exempt-tax)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납입 시점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이후 적립금 수령 시 자산가치 증가,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이다. 대체적으로 연간 납입한도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상위의 특정 소득구간에 대 해서는 공제액이 일부 감소한다. 반면, Roth IRA는 적 립금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이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수령 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EE(taxexempt-exempt)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높은 소득수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전통적 IRA가 유리한 반면, 소득수준이 낮아 세제혜 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향후 높은 금액의 퇴 직급여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Roth IRA가 유리하 다. 이처럼 미국은 투자목적 및 세금혜택이 다른 다양 한 IRA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개인의 금융 니 즈에 따라 적절한 IR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연금을 IRP로 통합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을 가지는 상품 개발 필요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제도로서 1994년 처음 개인연금 저축이 도입되었고, 이후 2005년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퇴직금 이전을 위해 IRA가 도입되었다. 반면, 미국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IRA가 도입되었고,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들로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A가 우리나라의 IRP와 연금저축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연금계좌로 통합되어 동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상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성격이 유사한 두 가지 다른 제도를함께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개인이 불입하는 연금계좌를 IRP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IRA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상품 특성 및 세제혜택 등이 다른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 써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도 다양한 IRP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다수의 IRP 간 이체나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 배우자, 연령별 등 가입자 특성과 투자목적 등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도입을 위한 과세체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비중 확대 다만 위험중립형 이하의 경우 비중 변화 없음

김하나씨는 50세 직장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월 2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62만 원, 퇴직연금 22만원, 주택연금 55만원으로는 부 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씨의 총 보유자산은 약 4.1억원인데 그 중 실물자산이 3.2억원. 금융 자산은 9천 6백만원으로 실물자산이 과도하게 많 은 편이다. 이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금 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113만원 정도의 연금신 탁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그 결과 매월 103만원 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연간 6.28%의 수익률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 수익률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으 로 위험중립형과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중립형을 포함한 안정추구형, 안정형 포트폴리오 에 대해서는 자산배분 비중 변화는 없으나 적극투자형 과 공격투자형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4월의 포트폴리 오 전략으로 제시한다.

지난 연말 이후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국내 증시는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1분기 기업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흐름을 보이면 서 세계증시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 금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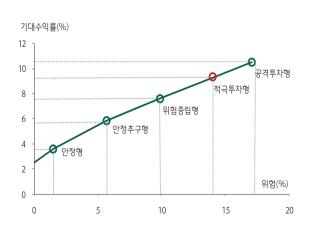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 중 주식시장 상승 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형의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고 해외 주식 중에서는 일본이 지속적 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우선 고려할 만하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5.0	15.0	25.0	32.5(+2.5)	45.0(+2.5)
해외주식	-	-	-	22.5(+2.5)	25.0(+2.5)
원자재	_	-	-	-	-
중위험형	_	_	-	7.5	7.5
ELS/ELD	10.0	12.5	15.0	10.0	10.0
국내채권	77.5	47.5	32.5	10.0	2.5
해외채권	-	17.5	20.0	15.0	7.5
현금성	7.5	7.5	7.5	2.5(-5.0)	2.5(-5.0)

지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지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노후 재무설계 하나행복가이드

첨부: 김하나씨의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 1. 김하나씨는 60세에 은퇴하며 생명표에 의해 약 80세 전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가정은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베이비 부머들의 희망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월 250만원 안팎으로 조사됨
- 2. 김하나씨의 재무상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발표한 50~59세의 평균인을 적용.(아래 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주요 통계치를 요약) 실물자산 조정은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순실물자산(실물자산-실물부채)으로 조정된 2.4억원은 주택연금의 대상자산으로 활용
- 3.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택가격 3억원을 60 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가입하면 69.1만원, 82.8만원, 100.6만원, 124.2만원, 156.9만원을 지급
-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2012)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평균 국민연금수

- 령액 62만원으로 가정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35%와 12.5%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 5. 연금신탁은 가처분소득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저축률 2.7%를 곱한 저축액을 60세까지 납입하는 것 으로 함.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 평균 수익률 4.1%를 적용
- 6. 월 부족자금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신탁을 차감한 금액이고,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 7. 현 시점에서 운용자산 금액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과 순실물자산 조정금액의 합이며 요구수 익률은 이 금액을 운용하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현재가치의 합이 되기 위한 수익률로 함
- 8. 이상의 가정은 평균인에 대한 수치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함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CHOI · DHΩI)

										(セカ・セゼ)
연령대	자산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금융부채	실물부채	소득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9,614	4,970	4,644	1,441	1,153	288	2,896	401	2,495	67
30~39세	22,464	8,379	14,085	4,308	3,373	935	4,595	818	3,777	102
40~49세	33,132	9,476	23,658	6,519	4,674	1,845	5,395	1,035	4,360	118
50~59세	41,611	9,654	31,957	7,521	5,077	2,444	5,150	974	4,176	113
60세 이상	30,457	4,904	25,553	3,473	1,855	1,618	2,340	334	2,006	54
전체 평균	31,495	7,842	23,653	5,291	3,598	1,693	4,233	758	3,475	9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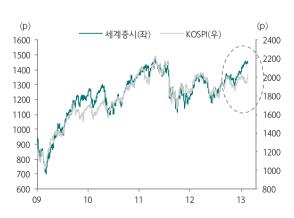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

월 주식시장은 엔화 약세가 재개되 는 가운데 펀드환매에 따른 기관매도 증가 로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전개되었다. 미국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코스피는 하락하였는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로 1940p까지 후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개선세 지속 및 중국의 경기부양 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4월 중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어 왔던 환율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4월에는 미국 재정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잔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 요 인이 남아 있으나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 완화, 엔화절 하 속도 둔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예상 되고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 추이



자료: Thomson Reuter, 하나대투증권

채권시장은 금통위 이후 금리반등 리스크 부각 전망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3월 금통위가 5개월째 기준금리 를 2.75%로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 락하였다. 이는 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 증가. 주 요 경기 지표 악화 등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따른 국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0% 에서 2.3%로 크게 하향하는 등 기준 금리인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 결정 전까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제 기준 금리가 인하되거나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 우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풍부한 시중 유동성 은 금리 반등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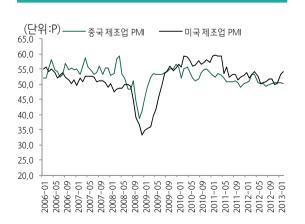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유럽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의 상슝 전망

한편 해외에서 미국시장은 미국 재정문제와 관련한 불 확실성이 잔존하나 민간부문의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로 GDP 증가률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일본은 엔화 약세 효과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등 기업실적 및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규제, 인플레이션에 따 른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우려되나 신도시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전망된다. 특 히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률(2013 년 7.5%의 GDP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B 경기부양 기대에도 불 구하고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 축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도 불 구하고 추가적인 통 화정책 실행 불투명으로 투자심리

중국 및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지료: Bloombertg, 하나대투증권

가 약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제조업지표가 개선되었으 나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지수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유럽과 인도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미 국과 중국을 위주로 한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경제 회 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로 금가격 하락 예상되며 배당 기대 감으로 리츠로의 자금유입 지속 전망

대안시장에서 원자재 등 상품시장은 유럽재정 위기 부 각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전망이다. 안전자산 선 호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 회복세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은 금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 리츠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 등 글로벌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리츠로의 자금유입이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공실률이 하락하고 임대료 및 자 산가격이 상승하여 리츠의 이익증가율 회복세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 보유실물 부동산가격 대비 리츠가격



지료: J.P Morgan 자산운용, 하나대투증권

美 Millennial 세대의 퇴직연금 수요와 효과적인 가입독려 방법

"Millennial 세대도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은퇴 및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Prudential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기업에 근 무하는 Millennial 세대(21~29세) 800명을 대상으로 은퇴를 위한 미래 준비상태와 선호하는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중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illennial 세대의 경 우 일시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거나 소비만을 생각한다. 고 판단하기 쉬우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Millennial 세대가 미래의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63%는 본인 연봉의 7%(약 1,750 달러) 수준의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nnial 세대의 은퇴준비 인식수준

응답비율
83%
81%
73%
58%
42%

한편. Millennial 세대의 월급 중 필수 생활비용을 제외 한 여유자금의 분배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최우선순 위로 은퇴를 위한 자금 준비에 두고 있으며 여유자금 의 17%를 이와 관련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중복응답)에서는 83%가 은 퇴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 현재 납입금 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81%는 불황기에도 퇴 직연금은 반드시 납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 답자의 73%는 은퇴 대비를 위한 현재의 퇴직연금 보 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볼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미국 의 Millennial 세대들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고, 실제 준비상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을 위한 회사 측의 퇴 직연금 정보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대다 수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사 측과 퇴 직연금 수요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사 측과 퇴직연금 수요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전달 방식 선호도

내용	응답비율
연/분기별 퇴직연금 보상체계 마련	73%
은퇴 대비 코칭 및 가이드라인 제시	69%
가상 은퇴 가이드	66%
친구 및 그룹 미팅과 프리젠테이션	6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	60%

회사 측의 퇴직연금 관련 교육 또는 교육도구, 정보 전달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A등급(회사 측의퇴직연금 정보제공 방식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경우)을 부여한 수요자는 20%, B등급(대체로 만족하나 보다 향상된 방식을 원함)을 부여한수요자는 56%, C등급(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에는 24%의 비율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Millennial 세대들은 보다 개선된 정보 제공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Millennial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보다 개선된 정보제 공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대안으로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73%)은 연 또는 분기별로 해당기간 내 은퇴준비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일 뿐만 아니라 기 가입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 세대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만족도



등급	내용	응답비율
Α	회사 측의 퇴직연금 정보제공 방식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완벽 하게 만족시키는 경우	20%
В	대체로 만족하나 보다 향상된 방식을 원함	56%
С	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	24%

또한 이 방식 외에도 69%의 응답자가 코칭이나 가이 드라인 제공 방식을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식이라고 응답했으며, 66%의 응답자는 가상 은퇴 가이드라인 제공 방식을 선호했다. 이것은 각각의 가입자로부터 은퇴준비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입자별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상품을 제시해주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 인터넷방송, 비디오 등의 인터넷과 미디어 대체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식이나 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방식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Millennial 세대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연간 혹은 분기별로 퇴직연금 납입목표를 달성한 근로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은퇴 대비를 위한 가상 은퇴 가이드라인 교육과 이 세대들이 익숙한 최신 IT기술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미국의 Millennial 세대와 같은 20~30대 젊은 사회초년 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회사 측의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Younger Workers and Retirement a 2012 Study by Prudential Retirement", Prudential, 2012.12)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방안

"Millennial 세대도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은퇴 및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동 주최한 제2차 인구 • 고령화 포럼이 지난 2월 14 일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 여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과 100세 시대의 은 퇴설계를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라 는 주제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금융시장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자산축적기간 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 할 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 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주요 국 평균인 5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 으며 World Bank가 권장하는 적정수준인 70~80%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소득 과 지출의 기복이 커서 생애에 걸친 소비의 평탄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인 의 자산축적기간은 일본인보다 짧은 반면 연금수급 기 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 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계의 자산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가 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0% 전후로 주요국의 가계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추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금융자산은 전체 가계 자산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특히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 투자상품 비중은 매우 낮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및 장기 저금리 추세 등 을 감안할 때,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형 상품 및 사적연금 비중의 확대를 예상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의 은퇴 금융환경을 자산축적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산축적기간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 정부는 국민 스스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 록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사적 연금시장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리스크 관리. 소비자 교육 등 다 양한 측면의 지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대 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자산유동화를 위한 장기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동 및 금융시장의 정책과 제",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 2013.2)



국내 근로자 퇴직연금 가인률 50% 수준에 근접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 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및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

2005년 12월말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및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2011년 말 49.9조원에 비해 17.4조원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도 46.0%로 가입 근로자가 전체 근로 자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 개소로 152만 개소인 전 사업장 대비 도입률은 13.4%로 파악되었다. 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 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 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유형별로 보면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 여형(DB) 적립금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 형(DC)은 17.8%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장기준으로는 DB형이 33.4%, DC형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 이 DC형에 가입한 상태이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인데. 최근 가입자의 안정적, 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감독 규정 등의 변화로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것으로 파악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수준에 근접", 고용 노동부, 2013,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상시근로자수 기준 구분	도입 사업장 수 (도입/전체)
10인 미만	121,781 (9.6%)
10~29인	63,369 (29.9%)
30~99인	20,978 (57%)
100~299인	5,369 (48.9%)
300~499인	873 (61.3%)
500인 이상	1,118 (86.5%)
합계	203,488 (13.4%)

월지급식펀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편드

은퇴 후 월급을 대신하여 생활비 창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월급을 대신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 매달 필요하다. 물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매달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펀드로 매달 생활비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목돈을 일시금으로 예치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운용해 일정 금액의 분배금을 매달 혹은 일정주기로 지급한다. 월지급식펀드는 투자유형, 분배율 결정방식, 분배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먼저 투자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펀드 상품과마찬가지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해외채권형등의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분배율 결정방식에 따라서는 분배 시기가 사전에 정해진 유형,매월추정수익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가 분배율을 결정하는

유형, 분배율 지급 시기를 판매사의 자동환매약정을 통해 투자자가 결정하는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 지급방식에 따라서는 매월 결산 또는 운용사가 정하는 금액을 기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투자자가 보유한 좌수에서 지급되는 좌수를 차감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즉시연금 대비 유동성측면에서 장점 보유

월지급식펀드와 같이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금 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즉시연금이 대표적이다. 즉시연금과 월지급식펀드는 지급방식이나 적용되는 수익률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즉시연금과 달리 월지급식펀드는 수익률이 상 품별로 다양하게 결정된다. 지급형태의 경우에도 월지급식펀드는 이익금 배당여부분배율 결정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지급기간과 수령액이결정되는 반면 즉시연금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

월지급식펀드 vs. 즉시연금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공통점		가입한 즉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수익률	투자수익률 적용	실세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차 이 점	지급형태	고객이 직접 매월 수령액 결정 가능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	보험사에 제시하는 지급 형태 중에 선택 -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원금과 이자 분할 지급 - 상속형 : 원금보전. 이자만 지급 - 확정형 : 일정기간 동안 연금 지급	
장점		물가상승 리스크 방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분배금 설계가능	안정적인 연금지급 비과세 혜택(10년 유지시)	
단점		원금 손실 가능성	물가상승에 취약, 해약불가능(유동성 제약)	

상품브리프 하나행복가이드

형의 3가지 형태만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 차이로 월지 급식펀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인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률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월지급식펀드는 국내 시장에 지난 2007년 초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펀드 투자를 노후 자금 관리 수단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

퇴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2010년 말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9개에 불과했던 월지급식펀드의 수는 현재 53개에 이른다. 최근에는 주로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는만큼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돈돈한 버팀목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의 기회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노후의 돈돈한 동행, 월지급식 편드가 도와드립니다.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이머정 채권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Global Solutions within Your Reach 그것 아니는 그것 그것 아니는 그것 그것 아니는 그것 그것 아니는 그것 그것 아니는 그것





하나은행. Asian Banker지로부터 모바일뱅킹·주택대출부문 수상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아태지역 금융전문지인 The Asian Banker지로부터 『Best Mobile Phone Banking Initiative... "Best Mortgage & Home Loan Product Initiative in Korea』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하나 은행의 모바일뱅킹 및 대출 상품에 대한 혁신성과 효 율성을 인정받았다.



하나대투증권, 스마트하나HT 『앱어워드코리아 증권부문 대상』 수상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하나HT가 디지틀조선일보

『2013 앱어워드코리아 증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하나HT는 기존의 시세, 거래 중심의 앱에서 진 화하여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에 유익한 앱이라는 평 가를 받았으며, 스마트하나HT 컨텐츠의 우수성을 객관 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외환은행, 더욱 강력해진 『2X Σ(시그마) 카드』 출시

외환은행은 Life-stage별 최적화 할인형 카드인 2X 알 파. 베타. 감마에 이어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 에서 당월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2X Σ (시그마) 카드』를 출시했다. 2X 시그마 카드는 사용 금액에 따른 추가 적립서비스와 함께 2X카드의 특징은 그대로 계승했다.



하나SK카드, 국내 최초 모바일카드 누적 매출 1.000억원 돌파

하나SK카드가 올해 1분기 모바일카드 이용액이 360 억원을 넘어서며, 진출 3년만에 최초로 모바일카드 누 적 이용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하 나SK카드의 독보적인 성과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 대 한 집중 공략 및 안심결제 등 보안 강화전략이 주효했 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 페이팔(Paypal)과 모바일 금융분야 업무 제휴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글로벌 온라인결제기 업인 페이팔(Paypa)사와 국내 최초로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양 사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 N월렛을 통해 해외 페이팔 계정 보유자에 대한 해외송금 서비스 『하나 글로벌 페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 실시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셋째 수요일마다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파, 영업점 금융상품 완전판매 점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행

외환은행은 신체상의 불편이나 PC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일반고객뿐 아니라 시각 장애가 있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국제 웹표준을 준수하여 OS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나SK카드, 더욱 강력해진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 출시

하나SK카드가 메가캐쉬백 시리즈의 3번째 상품인 『하나SK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동 상품은 젊은 고객 니즈에 맞춰 편의점 및 온라인 쇼핑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만원당 최대 200원 캐쉬백 등 메가캐쉬백의 핵심 서비스를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 활동 _{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2	59.6	9.3	60.8	74.5	78.7	71.9	33.8	57.3	8.4	55.9	72.0	77.1	70.2	32.4
2013.1	59.5	9.8	60.9	74.5	78.8	71.7	33.3	57.4	8.8	56.4	72.0	77.2	70.2	32.2
2013.2	59.6	8.8	60.7	74.5	78.6	72.1	34.2	57.3	7.9	55.3	71.9	76.9	70.2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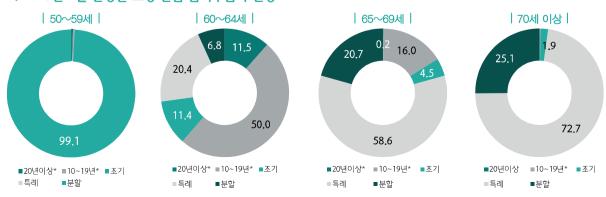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연도 총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8,689,861 36,368 40,935 9,866,681 1,925,023 6,754,838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11 20,276,178 1,195,137 11,485,798 8,496,180 1,938,821 6,557,359 207,098 87,102 20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 20,200,594 8,485,419 208,754 91,291 1,200,352 11,415,130 1,941,567 6,543,825

2. 2013년 1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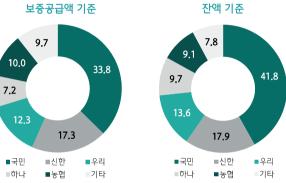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45
2010.12	2,016	3,036,120
2011.12	2,936	4,099,970
2012.12	5,013	6,900,600
2013.1~2	1,252	1,712,333
2013.1	653	899,742
2013.2	599	812,591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3.1	2009.12 1,124 2010.12 2,016 2011.12 2,936 2012.12 5,013 2013.1~2 1,252 2013.1 653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 명) 800 600 400 200 0 2009 2010 2011 2013.2 2012

2. 2013년 2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3,041	75,262
신한은행	1,558	32,211
우리은행	1,111	24,572
하나은행	650	17,460
농협	897	16,456
기타	869	14,091
합계	8,126	180,052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1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단위 : 명, 건)

					,= <u>0, =</u> .					
구분	급 근.				사업자					
干正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O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6,006,518	4,770,696	1,150,954	84,868	1,124,886	76,556	85,457	44,833		
생명보험	2,772,377	2,607,817	160,912	3,648	164,070	49,955	14,323	1,765		
손해보험	990,421	935,983	54,183	255	21,113	1,941	15,823	228		
증권	2,689,384	2,322,692	366,467	225	107,034	2,894	6,028	64		
근로공단	61,864	_	61,362	502	19,200	18,967	233	874		

주 : 2012년 1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는 438만명임 (DB형 309만명, DB형 152만명, 기업형 IRP 9만명)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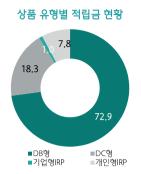
구분	합계	DB형 딘	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E	난독도입	기업형	♡ 도입
1 4	H71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09	185,689	63,150	34.0	3,881	2.1	89,571	48.2	29.087	15.7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연금 통계 하나행복가이드

3. 2013년 1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RP
합계	672,808	490,302	123,289	6,530	52,687
은행	335,912	212,923	80,286	6,338	36,365
생명보험	160,077	136,227	16,844	154	6,853
손해보험	50,945	45,103	4,057	9	1,777
증권	124,874	96,050	21,120	17	7,687
근로공단	1,000	_	983	12	5





4. 2013년 1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DB	형	DB	형	기업형	g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245,469	50.1	73,681	59.8	5,712	87.5	33,534	63.6	358,396	53.3
		금리확정형보험	171,204	34.9	12,174	9.9	104	1.6	7,024	13.3	190,506	28.3
		금리연동형보험	24,191	4.9	4,520	3.7	53	0.8	1,095	2.1	29,858	4.4
워		국채	497	0.1	1,067	0.9	0	0.0	1,564	3.0	3,128	0.5
힉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상		원리금보장ELS	34,221	7.0	1,905	1.5	0	0.0	2,539	4.8	38.665	5.7
		RP	7,532	1.5	1,447	1.2	0	0.0	739	1.4	9,718	1.4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17	0.1	0	0.0	29	0.1	146	0.0
	기타		734	0.1	426	0.4	0	0.0	151	0.3	1,302	0.2
	원리	l보장금 소계	487,839	98.7	95,337	77.3	5,869	89.9	46,675	88.6	631,720	93.9
	실적배당형 보험		165	0.0	1,512	1.2	9	0.1	353	0.7	2,039	0.3
		주식형	797	0.2	3	0.0	0	0.0	7	0.0	806	0.1
	T.	혼합형	1,056	0.2	12,783	10.4	182	2,8	1,266	2.4	15,287	2,3
실	집합투자	채권형	2,698	0.6	11,746	9.5	408	6.3	1,727	3.3	16,580	2.5
실적배당	투 자	재간접	1	0.0	164	0.1	0	0.0	24	0.0	189	0.0
당	증 권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12	0.1	510	0.4	36	0.5	44	0.1	901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028	1.0	26,719	21.7	635	9.7	3,421	6.5	35,803	5.3
	직접투자		110	0.0	87	0.1	0	0.0	246	0.5	443	0.1
	실	적배당 소계	5,138	1.0	26,806	21.7	635	9.7	3,667	7.0	36,246	5.4
	С	배기성 자금	1,324	0.3	1,146	0.9	26	0.4	2,346	4.5	4,842	0.7
		총계	490,302	100.0	123,289	100.0	6,530	100.0	52,687	100.0	672,808	100.0

5. 2013년 1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EII: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 正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17,579	94.5	154,407	96.5	50,098	98.3	108,651	87.0	985	98.5
실적배당형	15,555	4.6	5,447	3.4	790	1.6	14,447	11.6	6	0.6
기타	2,778	0.8	223	0.1	56	0.1	1,775	1.4	9	0.9
합계	335,912	100.0	160,077	100.0	50,945	100.0	124,874	100.0	1,000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지금(교유가 정대, 발행이음 및 기타 현금성 지산 등)

www.hanaif.re.kr



